서울 대학로에 제주어로 그릴 불멸의 '자청비'

제주 강준 작가 희곡 바탕 재경연극인 '괸당들' 제작 서울 말모이연극제 공연

제주 극단 세이레도 참가 동명의 '자청비' 무대 올려

극단 괸당들의 '자청비2020'.

제주 연극인들이 한글날이 있는 10월에 제주어와 제주신화가 만난 무대를 서울 대학로에 펼쳐놓는다. 제2회 말모이연극제 제주 참가작으로 공연되는 극단 괸당들의 '자청비2020'과 극단 세이레의 '자청비'다.

극단 괸당들은 재경제주연극인 모임을 기반으로 2019년 프로젝트 극단으로 꾸려졌다. 지난해 첫 말모이연극제에서는 '눈오는 봄날'로 제주어의 묘미를 서울 관객들에게 보여주며 최고 흥행 기록을 남겼다.

이들이 선보이는 '자청비2020'(원제 '간병인')은 소설가로, 극작가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제주 강준(본명 강용준) 작가의 희곡을 바탕으로 했다. 그리스신화처럼 빛나는 이야기를 품은 세경본풀이 신화 속 자청비가 갖은 시련을 딛고 사랑을 쟁취해가는 과정을 오늘날의 관점으로 해석했다. 송윤석씨가 연출하고 고인배, 조옥형, 강제권, 신지인, 고지은씨가 출연한다.

강준 작가는 "신화에 나오는 사랑, 질투, 간계, 인내 등은 인간의 태생적 본성으로 불멸의 테마"라며 자청비 신화의 영속성을 소개했다. 송윤석 연출가는 "2020년 자청비를 옥죄는 대상과 세력을 강조해 그녀가 왜 그런 길을 갈 수 밖에 없었는지를 과감하게 그려내고 싶다"고 했다. 공연 일정은 이달 20~25일 종로구 후암스테이지 1관.

제주에서 활동하는 극단 세이레는 10월 23~25일 또 다른 '자청비'(정민자 작, 연출)를 무대에 올린다. 2012년 고마나루 전국향토연극제 대상을 받았던 작품이다. 신화 원작에 충실하되 놀이 형식으로 자청비 이야기를 제주어로 재미나게 풀어낸다. 설승혜 오현수 양순덕 김이영 정민자씨가 출연하고 음악감독인 한재준씨가 연주를 맡는다.

말모이연극제는 전국의 지역색과 '사투리'를 담은 작품을 공연하는 우리말 연극제다. 올해는 7개 지역 8개 단체가 참여해 9월 8일부터 10월 25일까지 연극제를 이어간다. 문의 0505-894-0202. 진선희기자

詩(시)로 읽는 4·3 (78)

가문동 편지

정군칠

낮게 엎드린 집들을 지나 품을
옹송그린 포구에
닻을 내린 배들이 젖은 몸을 말린다
누런 바다가 물결 져올 때마다
헐거워진 몸은 부딪쳐 휘청거리지만
오래된 편지봉투처럼 뜯겨진 배들은
어디론가 귀를 열어둔다

저렇게 우리는,
너무 멀지 않은 간격이 필요한 것인지
모른다 우리가 살을 맞대고 사는 동안
배의 밑창으로 스며든 붉은 녹처럼
더께 진 아픔들이 왜 없었겠나

빛이 다 빠져나간 바다 위에서
생이 더욱 빛나는 집어등처럼
마르며 다시 젖는 슬픔 또한 왜 없었겠나
우리는 어디가 아프기 때문일까
꽃이 되었다가 혹은 짐승의 비명으로 와서는
가슴 언저리를 쓰다듬는 간절함만으로
우리는 또 철벅철벅 물소리를 낼 수 있을까

사람으로 다닌 길 위의 흔적들이
흠집이 되는 날
저 밀려나간 방파제가 바다와 내통하듯
나는 등대 아래 한 척의 배가 된다
이제야 너에게 귀를 연다

하귀리는 4·3 당시 두 개의 마을로 나뉘어져 있었다. 하귀1구는 속칭 군냉이라 불렀고, 2구는 미수동, 가문동, 개수동, 답동, 번대동이 5개 자연마을로 구성되었다. 일주도로면에 대다수 마을이 위치했으나 개수동은 산쪽으로, 가문동은 해안가에 위치했다. 마을 유지와 청년들은 1945년 10월 하귀중학원을 설립하여 중등교육을 시작하는 등 많은 활동을 벌였다. 하귀리와 경찰 간의 본격적인 대항은 1947년 3·1절 발포사건 후 시작되었다. 3·1사건 직후 전도에 걸친 검거선풍의 와중에서 김용관 하귀초등학교 교장이 검거되어 체형 6개월을 언도받았고, 후임으로 이북 출신 교장이 부임하자 학생들은 동맹 휴학을 벌였다. 미군정은 마을의 움직임에 탄압을 계속하여 하귀중학원생 대부분을 1947년 여름 제주경찰서에 구금하였다. 1948년 5월 25일 새벽, 경찰과 대청단원, 서청이 가문동에 들이닥쳤다. 그들은 주민들을 돈지동산에 집결시켰다. 경찰은 한 사람씩 취조했다. 주민들을 짝 지워 뺨 때리기를 시켰다. 마을 건너 원벵듸에서 주민들을 총살했다. <김관후 작가·칼럼니스트>

추자도에 춤추듯 부는 미술 바람

송창훈의 '비긴 어게인'

2020 마을미술 프로젝트 후포갤러리 참여 작가전

'미술의 섬'으로 변신하고 있는 추자도에서 '2020 마을미술 프로젝트' 참여 작가전이 열리고 있다.

추자도 마을미술 프로젝트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재)아름다운 맵,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서 추진됐다. 제주도와 (사)문화조형연구센터(대표 하석홍)는 총 사업비 8억2000만원이 투입된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 지역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과 미술품 설치에 나섰다. 하석홍, 송재경, 이범진, 박금옥, 홍지희, 김동원 작가가 참여해 신양리 여객터미널 앞 등 6곳에서 추자도의 삶과 풍경을 반영한 작업을 풀어냈다. 이 과정에서 방치되었던 문화공간을 갤러리로 바꾸고 해조류 건조장으로 쓰던 어촌계 창고를 쉼터로 재탄생시켰다.

'잠시 멈추자, 바람과 춤을 추자'란 이름을 단 이번 전시는 10월 6일 시작돼 11월 20일까지 후포갤러리에서 열린다. 후포갤러리 역시 마을미술 프로젝트로 상추자도 대서리 후포 포구에 조성된 공간이다.

참여 작가는 김남표 김도형 김보연 김이선 김태연 박주우 송창훈 하석홍 등 8명에 이른다. 올해는 이들 작가를 주축으로 7개의 예술작품을 설치하고 지역민 참여 프로그램을 이어간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문화가 쪽지

코로나19 힐링 콘서트

(사)린덴바움(대표 이승희)이 8일 오후 7시30분 끌로드아트홀에서 '코로나19 힐링 콘서트'를 갖는다.

이번 공연에는 린덴바움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인 바이올리니스트 원형준씨가 피아니스트 이지애씨와 호흡을 맞춰 베토벤의 '로망스 제2번', 브람스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제2번', 프랑크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A장조'를 연주한다. 예매는 끌로드아트홀 네이버예약 페이지.

한국수묵연구회 회원전

한국수묵연구회 회원전이 제주시 도남동민회관 앞에 있는 갤러리카페 지오에서 9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엔 제주 풍광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수묵산수화 24점이 나왔다. 장은철 작가가 지도하는 한국수묵연구회는 전통수묵화를 깊이 있게 연구하고자 인생 2막을 시작한 아마추어 화가 모임이다. 4년째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산수화 그룹으로 젊은 세대와 산수화를 공유하며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현인갤러리 이원숙 초대전

현인갤러리(관장 김형무)가 '휴(休)'란 이름으로 이원숙 초대전을 열고 있다.

일본 타마미술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마친 이원숙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캔버스에 아크릴 물감으로 그린 '휴' 연작 등을 선보인다. 코로나19로 찾아든 '쉼'이 삶에 대한 사유 기회가 되길 바라며 창작된 비구상 회화들로 독특한 구도와 색채의 향연에 서로 다른 존재가 만나고 스며든다. 이달 14일까지. 문의 747-1500.

문화예술 창업 아카데미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는 서귀포사회적경제복지센터와 공동으로 10월 13~11월 3일 '서귀포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창업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문화예술과 사회적경제, 서귀포 역사 문화 이해, 문화예술 콘텐츠와 사업모델 개발, 문화예술분야 사회적 기업가 사례발표, 문화예술 협동조합 운영과 리더십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참가자에겐 컨설팅과 공동 프로젝트 사업비가 지원된다. 문의 733-8219.

파파사이트서 유유출판사와 함께

저지문화예술인마을에 있는 파파사이트가 한글날을 맞아 작은 출판사의 개성과 문화다양성을 경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달 9~10일 열리는 이번 행사엔 유유출판사가 함께한다. 파파사이트는 이곳을 2012년부터 현재까지 100여 권의 인문교양서를 출간한 곳으로 작은 판형과 재생용지, 단순한 디자인으로 독자적인 개성과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단단한 출판사로 소개했다. 9일에는 김이경의 '시 읽는 법'과 장석훈의 '생각의 말들', 10일엔 김은경의 '습관의 말들'과 김정선의 '열 문장 쓰는 법' 등 저자 강연이 이루어진다. 마지막 순서엔 유유출판사의 조성웅 대표가 출판사 운영과 브랜드 마케팅을 이야기할 예정이다.

참가비 무료. 단, 참가하기 전에 책을 읽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papasitejeju) 참고. 참가 신청은 010-2717-5821(문자). 진선희기자